

종합·해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천계산 원터골 등



박원순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환경

박원순 '완승' 박영선 '역전' 긴장감 팽팽

야권통합후보 결정짓는 참여경선 관심 집중

“박영선 후보의 극적인 역전이나, 박원순 후보의 완승이나.”

3일 발표되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배심원 평가에서 박원순 후보가 54.4%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44.1%)를 10% 포인트 이기는데 그치면서 최종 결과 예측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한 자릿 수 내에서 우위를 보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3일 치러지는 국민참여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조직력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이날 박영선 후보가 6대 4 정도의 우세를 보인다던 막판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3일의 국민참여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역전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도 이날 후보 단일화 결과와 관련, “여러 얘기를 종합하면 일반적 평가는 5대 5로 팽팽한 상황

이라고 본다.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풍(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박원순 후보의 완승을 예측했다.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에서 조직력을 총동원하겠지만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차이는 배심원 평가에서보다 조금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참여경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한 자릿 수에 불과, 결국 박원순 후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권 단일후보 오늘 선출...서울시장 선거전 본격화

與-시민후보나 女-女대결이나

야권이 3일 오후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 TV 토론 후 배심원단 평가 30%, 국민참여경선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데 지난 30일 실시된 배심원 평가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54.4%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44.1%)와 민주노동당 최규업 후보(1.5%)를 제쳤다.

여론조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 추출로 서울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경선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6만384명의 선거인단 중 3만

명을 선정,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 투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야권의 단일후보 발표시간은 3일 오후 8시로 예정됐다.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나경원 의원을 후보로 확정해 놓은 상황여서 야권의 통합후보가 선출되면 정국은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6~7일 후보자 등록을 걸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서울시장직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진검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

여 있는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통합후보 선출 결과에 따라 여권의 선거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일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참여하는 ‘초계파 선대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5일 복지당론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당내 최대 주주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포지티브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원칙 하에 박원순, 박영선 후보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보수 결집을 위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연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 통합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선대위를 발족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선출될 경우 단일화 효과 극대화에 나서는 한편, 무소속 박원순 후보로 결론되면 입당을 통한 ‘민주당 후보’ 만들기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와 함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경제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켜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영선 “BBK 의혹 제기엔 남편 직장 잃어”

박원순 “후원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안 썼다”

두 야권후보 정치권 제기 각종 의혹 적극 해명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를 놓고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가 1일 인터넷 정치기자 토론회 ‘나는 꿈꾸다’에 출연,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영선 “남편, 정치적으로 쫓겨나”=박영선 후보는 남편이 일본으로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해 “남편은 BBK 사건 때문에 (한국) 직장에서 쫓겨났다”며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도쿄(東京)라고 해서 맨땅에 헤딩해서 들어갔다. 정

치적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BBK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 헤어져 살아야 할지, 내가 정치를 계속 해야 할지 가족들이 심각하게 회의했다”며 “남편은 지금 한국국적이지만 자신의 문제로 제가 구설수에 오를 것을 보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순 “후원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 안해”=박원순 후보는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금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발생한 논란에 대해 “모금에는 관여했지만 사용은 배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2~3달이 지나면 인터넷에도 다 공개했다”며 “한 푼도 개인적으로 먹은 돈이 없고 불투명하게 사용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인의 인테리어 업체가 아름다운가게 18개 매장을 시공한 것에 대해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후 집도 팔고 지금은 보증금 1억원 짜리 월세에 살고 있다”며 “집사람이 먹고살려고 인테리어를 한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 집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경원 “서울시 부채 절반으로 줄이겠다”

10월 재보선 전남 5곳

박지원 “민주당 가장 뛰어난 선거 운동원은 MB”

‘초계파선대위’ 6일 출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전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 후보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투자기관 포함)의 부채는 (오 전 시장의 재임기간) 지난 2006년 11조7174억원에서 지난해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이 늘었다”면서 “증가 부채 대부분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재정 발행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이 중 4조원 이상을 갚아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또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 전 시장의 ‘함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전시장 사업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완료된 사업은 공공활용을 높이는 것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

업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 서해 뱃길사업의 수상호텔 건설 등은 현재 재정현황상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참여하는 ‘초계파 선대위’를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늦어도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6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26 재보궐선거가 전남 5곳을 비롯한 전국 42곳에서 실시된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전남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5개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선거지역은 장성군 제2선거구(도의원), 함평군 제1선거구(도의원), 장성군 나 선거구(군의원), 화순군 다 선거구(군의원), 무안군 가 선거구(군의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현재 민주당의 가장 뛰어난 선거운동원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제8회 총장 추경” 참석차 광주를 찾은 박 전 원내대표는 동구 총장으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 10·26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박영선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 시대의 최고 개혁과 혁신이 내내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과 단일화는 중요하다”라며 “후보가 결정되면 반드시 단일후보를 거당적으로 당선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하되 상호 상처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측근 비리와 관련,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상당히 신

빙성 있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한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일 대검찰청, 6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추가 공개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환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애 밝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배송 무료배송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직할)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병원, 사육, 임대용상가건물신속부지적합) 화정동, 광산도리번, 지하철약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포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스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3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근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68평 건평112평
- 김장기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말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 김장기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생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 김장기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봉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 김장기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 김장기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지문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